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6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6. 11. 11.(금) 09:39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6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9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6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58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11월 8일에 있었던 제62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6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의결사항

가.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 허가에 관한 건 (2016-63-230)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 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의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허가를 의결한다. 수도권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2월 개국 예정인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의 허가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신청법인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15년 12월 29일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16년 5월 26일 「지상파 UHD 신규허가 기본계획」을 의결하였고, ‘16년 8월 26일 수도권 지상파 UHD 신규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16년 8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미래부의 기술심사가 있었고, 적합하다는 회신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6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일정 중 10월 18일 그리고 10월 20일에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결과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총 11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평가 결과는 3개 방송사업자의 4개 방송국에 대한 심사결과 모두 1,000점 만점 중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입니다.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KBS, MBC, SBS는 기존에 디지털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평가결과 수도권 지역 UHD 방송을 위한 기술·재정적 능력 및 프로그램 편성계획 등이 심사기준에 부합하여 심사점수를 650점 이상 획득하였으므로 허가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허가 유효기간은 최초 허가인 점을 고려하여 3년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다만, 허가신청서상 콘텐츠 투자계획이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 비하여 미흡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가신청 사업자들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를 재허가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부는 개설허가에 필요한 기술적 심사항목을 모두 만족하며,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 콘텐츠 보호기술 도입에 따른 시청자 보호조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술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허가신청서 보정 결과입니다. KBS, MBC, SBS는 기 제출한 허가신청서의 UHD 콘텐츠 투자계획 및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확대하는 계획을 '16년 11월 10일 보정하여서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신규허가 여부와 관련해서는 KBS, MBC, SBS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미래부 기술심사도 충족하여 허가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허가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조건입니다. <1>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집행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UHD 프로그램을 2017년 5% 이상, 2018년 10% 이상, 2019년 15% 이상 편성할 것, <2> 지상파 시청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HD 채널과 UHD 채널의 방송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편성할 것(단, UHD 채널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프로그램을 별도 편성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을 것), 다음 페이지입니다. <3>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운용개시 일정을 준수할 것(단, 일정을 연기해야 할 불가피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4> 이동방송과 양방향 서비스 등 UHD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 <5> 본방송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수도권 방송권역의 수신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완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신 불량 지역에 대한 조치계획(수도권 지상파 UHD 커버리지 조성을 위한 보조국 운영계획 포함)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것, <6> 콘텐츠 보호기술을 도입할 경우 제조사와의 협의내용, 시청자 보호조치 등의 세부적인 조치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할 것, <7> 타 무선국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지체 없이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문제를 해결하고, 조치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8>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9> 다음 항목에 포함된 '지상파 UHD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서'를 2018년부터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단, 2017년에는 본방송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UHD 관련 전년도 투자실적 및 당해 연도 투자계획(투자이행을 위한 제원마련 실적 및 계획 포함) 그리고 UHD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편성내용·편성비율에 대한 실적 및 계획, 지상파방송 직접수신을 향상을 위한 공익광고 등 홍보실적 및 계획, 기타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의 이행 실적/이행계획 등 지상파 UHD 방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KBS에 대한 개별 허가조건으로는 방송법 제54조에 따른 EBS의 UHD 채널 송신지원에 대하여 EBS와 조속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공통 권고사항은 <1> '15년 12월 수립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 기재된 금액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보도·오락·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UHD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 <3> 수도권 지역의 SFN 방송망 구축을 조속히 완료하여 지상파 UHD 본방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 <4> 평창 동계올림픽 UHD 중계를 위한 중계·촬영설비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에 대해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최초로 시행하는 지상파 UHD 방송 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장으로 애써 주신 고삼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고삼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이 안건에 다 포함시키지 못한 내용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 신규허가 심사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해 준 심사위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심사 이후 추가적인 사업자 의견청취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경과에서 밝혔듯이 이번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방송 신규허가 심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와 지상파방송사, 가전사, 연구기관 등 민관이 함께 발표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 기초해서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지상파 UHD 정책 방안과 허가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심사의 기본방향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상파 UHD 방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서비스인 만큼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인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UHD 방송은 신규로 도입하는 방송서비스로서 경영·기술적 능력과 콘텐츠 제작 투자계획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은 안건에 적시되어 있듯이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KBS, MBC, SBS는 수도권 UHD 방송을 위한 기술·재정적 능력 및 프로그램 편성계획 등이 심사기준에 부합하여 허가함이 적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 심사와 별도로 전체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사업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꼼꼼하게 점검한 것은 이번에 지상파 3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지상파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국민행복 UHD 플랜’이나 정부와 지상파 방송사들이 함께 마련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 비교해서도 미흡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2014년부터 유료방송을 통한 UHD 방송이 서비스되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 UHD 방송 도입정책을 마련한 것은 지상파 3사가 700MHz 대역 주파수 배분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그 명분으로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 UHD 방송을 도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상파 3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의견청취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태도를 보면 어려운 경영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마치 등 떠밀려서 UHD 방송사업을 준비하는 것처럼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지상파 UHD 방송서비스의 성공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못지 않게 공공재인 700MHz 대역 주파수를 무료로 배분받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공적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허가권자로서 방통위는 “일단 사

업권을 주면 UHD 방송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구두 약속만 믿고 사업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판단해서 오늘 말씀드린 구체적인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무처에서 이러한 허가조건과 권고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에 대해서 별도로 허가조건을 부과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9월에 본방송 예정인 EBS의 경우 이번에 함께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방송법 제54조에 따른 KBS의 EBS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지원 범위에 대한 해석 논란으로 인해 KBS가 EBS에 대한 송신지원 여부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EBS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회는 KBS와 EBS가 EBS UHD 채널 송신지원 방식에 대해 합의하고 그 결과를 금년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KBS의 개별 허가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KBS가 법적책무를 계속 거부할 경우 방통위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내년 2월 지상파 UHD 본방송 실시를 앞두고 준비기간이 부족해서 TV수상기 보급, UHD 프로그램 편성, 수신환경 개선, 장비 안정화 등 본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국회와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방통위와 지상파방송사업자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 신규허가를 계기로 국내 지상파 UHD 방송 기술 수준의 향상과 콘텐츠 제작 역량의 획기적 제고를 통해 우리나라가 UHD 방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UHD 방송 허가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그다음에 저희가 부과한 허가조건 권고사항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우선 여기 추진경과에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심사위원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10월 29일 토요일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 다 모여서 허가 신청한 3개사를 대상으로 아주 심층적인 추가 의견청취 내지는 토론 내지는 의견제시, 그것이 아주 중요한 추진경과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신규허가가 됐든 재허가가 됐든 위원님들이 다 모여서 그런 추가적인 의견청취를 한 것은 제3기 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논의가 됐다고 생각해서 우선 추진경과에 그 내용을 추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상파 UHD 도입 문제에 관해서 수년 동안 국내 각계에서 많은 논의를 했고 특히 2014년에 그리고 작년 초까지 주파수 문제 가지고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인 이후에 작년 말에 미래부, 방통위 그리고 또 지상파 3사 같이 참여해서 지상파 UHD 정책방안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파수 관련해서 논의과정 그리고 작년 말에 수립한 UHD 정책을 수립하는 논의과정에 참여해 해 본 저로서는 이번에 지상파 3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라든가 위원님들과의 추가적인 의견청취 과정에서 지상파들이 아주 소극적인 의지 내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저는 오늘 보고한 내용에 작년 말에 우리가 확정된 정책방안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통위의 의지가 많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허가조건이나 권고사항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이 당초에 우리의 정책 의지대로, 우리가 정책을 단독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지상파들과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과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 놓은 그 정책방안대로 이행하기 위한 허가 조건, 권고사항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매우 많은 분들이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단, 앞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지상파들의 자원 조달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도입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방식의 텔레비전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라든가 기존 유럽방식의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라든가 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것이 잘 작동, 운영이 되도록 하는 준비과정, 테스트 과정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방통위로서는 차질 없는 지상파 UHD의 도입과 안착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방송정책국에서 지상파 UHD를 계속 팔로우업(follow up)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담인력이나 TF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늘 인력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전담조직에서 계속 지상파 UHD 준비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이라든가 문제점들을 다 해결하고 지원해 주고 또 지상파들이 오늘 이것이 의결되면 이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도 계속 모니터링 하기 위한 그런 한시적이 라도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UHD 방송국이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방통위가 하라고 해서 시작된 것도 아니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방송사업자들과 충분히 협의했고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지상파방송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지상파방송의 직접수신율이 계속 낮아지고, 지금 한 6% 안팎 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5%에서 6% 정도 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5, 6% 정도, 프로그램별 시청률도 유료방송들과 경쟁해서 밀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료방송이 많이 생겨나니까 지금 지상파방송들에 위기가 닥쳐오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정부가 끌고 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결코 아니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같이 하는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함께 하는 것인데, 그래서 중요한 계기는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중계를 UHD 방송으로 해서 전 세계에 그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계기를 잘 만들면 좋겠습니다. 허가 조건 9항에 보면 '지상파 UHD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서'를 2018년부터 매년 방통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본방송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내게 해 놓았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이때 말하자면 점검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바로 2018년 2월에 평창올림픽에 활용할 수 있게, 지금 IOC가 평창올림픽 중계방식을 UHD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내부 논의 중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고 이것이 충분하다, 완성도가 높다, 자신 있다 하고 내보여야 채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제일 앞서가는 UHD 방송을 실행에

웁기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하여튼 내년에는 중간보고서를 전반적인 점검을 하는 그런 보고서로 하면 좋겠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아까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송정책국의 통상 업무가 될지 모르겠지만 TF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정책지원도 하고 방통위가 국회에서 그런 지적들도 있었습시다만 “규제기구이지 진흥업무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시다. 그런데 저는 UHD 방송 도입이야말로 저는 정책 지원과 진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무처에 방송정책국의 UHD 방송 점검 TF를 만들어서 점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KBS의 EBS 송신지원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양사가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이 돈 문제이고 경영상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방송법상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그 송신 지원의 개념이 시설장비를 갖추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기술적인 송신, 실무적인 송신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이냐를 두고 다투는 것 같습니다. 우선 양 당사자 간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협상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걱정이 됩시다만 우리의 입장도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정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서든지 방통위가 한쪽 편을 든다는 불만은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게, 그러나 그 입법 취지에는 맞게 그렇게 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앞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피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KBS에 대해서만 개별적인 허가조건이 따로 붙었습니다. 보니까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EBS와의 문제인데 지금 UHD 송신지원을 해 주라는 것이 방송법 제54조에 따른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그것이 액수 문제입니까, 아니면 범위 문제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아마 범위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EBS 쪽에서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장비의 구매와 운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쪽에서는 구매는 어렵다, 운용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송신지원의 개념이 운용 쪽으로만 맞춰져 있습니다. KBS에서는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UHD 인프라 구축비용까지도 EBS에서는 달라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이 약 얼마쯤 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수도권 기준으로 하면 약 20억원 정도 EBS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구축하기 때문에 전국으로 10년 동안 따지면 그 금액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 해묵은 분쟁인데 KBS 쪽에서는 송출과 송신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송출·송신 개념도 문제가 되지만 거기보다 지원의 개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송신지원 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간 구체적인 범위를 협약으로 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협약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내린바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EBS 주장은 송출업무까지도 다 지원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이고, KBS는 송출은 그야말로 방송사 구조에서 송신소, 송신탑까지 전파를 쏘는 것이 송출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KBS 주장은 송신탑에서부터 각 가정 TV수상기로 옮겨가는 그때 전파를 쏘는 행위가 송신이다. 그래서 방송법 제54조에 있는 송신은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데 KBS 말 그대로 대로 송신의 개념을 그렇게 인정하면 지원액은 관리비용만 지원하면 되는 것이고, 인프라 구축비는 EBS가 자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것이 쟁점이지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축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것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까지는 EBS가 KBS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송출까지도 사실은 KBS가 지금까지 해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KBS 쪽은 매년 약 5년간 계속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이 비용까지는 이번부터는 털어야겠다, 그래서 협의로 개념을 축소해서 이제부터는 송신 개념으로 방송법에 나와 있는 송신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지금부터는 EBS가, EBS는 아직 재정상태가 좋으니까 그 비용을 대라는 것에서 지금 서로 간에 아직 합의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 허가조건에 보면 KBS에 대해서만 'EBS와 조속히 합의해라, 연말까지 합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가 하는 것인데 어느 일방에다가 그 책임을 묻는 형태가 되면 협상 진행이 잘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EBS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KBS에만 '연말까지 합의해 내라. 그리고 보고를 해라' 이렇게 우리 행정지도가 나간다면 EBS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KBS가 다 패널티를 물게 되어 있다고 해서 자기들은 소극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협상의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 여기 개별 허가조건에 KBS에 대한 것이니까 여기에 EBS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답을 수 없겠지요. EBS에도 협상을 성실하게 책임 있게 진행해서 반드시 합의를 이루라, 그런 서로 간의 쟁점을 우리가 개입해서 협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다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KBS가 일견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지금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유권해석은 어쨌든 송출과 송신 개념에서 양 사업자 간의 협의할 문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린 바가 있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유권해석을 다시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협상이 잘 진행되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UHD 준비를 우리가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결론적으로 KBS만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EBS에게도 그런 책임 있게 진행하라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권고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EBS는 현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중재라는 자리를 같이 마련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협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KBS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특별히 지적합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추가하실 것 있으면 그 전에 잠깐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을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시겠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왜냐하면 심사할 때 논의가 됐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방송법 제54조에 규정되어 있는 EBS 송신지원, 이 범위에 대해서는 물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양 주체인 KBS와 EBS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는 김석진 위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나 정확히 할 것이 과장님, 예전에 우리가 입장 발표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2013년 1월에 이와 관련된 논란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공문으로 보낸 것이 있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핵심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EBS에 대한 구체적인 송신지원의 내용과 범위는 사업자 간 기존 협의사항, 현 송신지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양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즉, 뒷부분만 보면 양사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변화가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안정적인 송신지원을 위해서 기존 사업자간의 협의사항이나 현 송신지원 현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것이지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지금처럼 백지 상태에서 협의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물론 기존의 지원 관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참조될 수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 것을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제가 '99년도 그리고 2000년도 방송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제가 국회에서 협의업무를 실제로 담당했습니다. 그때와 그 이후에도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수신료, 방송법상의 수신료는 KBS 수신료가 아닙니다. 공영방송 수신료입니다. 공영방송에 대해서 내는, 거기에서 EBS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3%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3%지요? 2000년도 방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EBS에 대한 수신료 배분비율을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매년 방송법 개정이 논의될 때마다 최소 7%에서 15%까지 배분비율을 높이자, 이런 주장이 있었지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KBS에서 수신료 배분비율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KBS가 EBS에 대해서 송신지원을 하는 그러한 예산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로 해야지 수신료 배분비율을 더 높이면 안 됩니다' 해서 그 요구들이 수용된 것입니다. 그 배경도 잘 알고 계시지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나중에 혹시 KBS와 EBS가 협의를 원만하게 되지 않아서 어찌됐든 우리가 내년 9월에 EBS UHD 본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저희가 조정안을 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EBS 송신지원에 관한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경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석진 위원님께서 송출·송신 개념을 약간 구분해서 설명하셨는데 현재 방송법상에서는 그것이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송출….

○ 최성준 위원장

- EBS 송신지원 하면 방송국에서부터 송신탑을 통해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전 과정을 다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자꾸 2013년에 있었던 회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회신의 문구에 대해서도 고삼석 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시다만 그 당시 기본적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은 방송법에 따를 경우에는 KBS가 EBS의 송신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양 당사자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쪽 '이러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라는 것을 달아서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양사가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모양새를 취하도록 한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회신해 준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죄송합니다. 아까 이야기 안 한다고 했는데….

○ 최성준 위원장

- 괜찮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추진경과에 10월 29일 위원님들이 의견청취 한 것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TF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내년 2월 본방송 준비할 때까지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서 그 TF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UHD 서비스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TF가 최소한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미디어운영국에 우리 간부가 한 분 나가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보통신국이라고 미래부에서 국장하고 직원들이 나가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 때 IT 올림픽을 겸한다 이런 취지에서 세계 최초로 5G와 지상파 UHD를 선보입니다.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인데 그동안 제가 보기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지상파 UHD 서비스 제공에 대해 방통위 차원에서 크게 케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래부가 그것을 해왔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의결이 되고 허가서가 나가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UHD 서비스 제공은 방통위의 주 업무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우리 간부가 그것을 계속 팔로우업(follow up)을 해야 하는데 평창 조직에 맡길 것이 아니라 방통위에서 그것을 관심 갖고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터닝포인트(Turning point) 마련을 위해서 위원장님의 국회 일정이 마무리되면 12월 초라도 평창에 현재 지상파 3사의 책임자들과 같이 가서서 평창 조직위와 현재까지 준비상황도 점검하고 평창 조직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청취하셔서 우리 방통위의 의지,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TF를 구성했을 경우에 평창 조직위에 나가 있는 우리 간부, 또 직원들도 있는데,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당연히 2018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은 UHD 중계가 되는 것이지만, 쉽지는 않은 과정이나 그것이 우리나라의 중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에 OBS를 통해서 중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12월 중순경에 평창을 방문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마지막으로 제가 걱정 겸 당부사항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UHD가 내년 2월에 지상파에서 수도권에서 시작되면 과연 몇 가구에서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UHD 방송의 수신환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TV수상기가 현재로서는 기술표준이 미국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또 미국식에 맞춘 TV수상기 제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월이나 그것이 시판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수신할 수 있는 수상기가 과연 몇 대나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식의 UHD 수신할 수 있는 TV는 컨버팅(converting)을 할 수 있는, 컨버팅(converting) 개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셋톱 박스에 새로 돈을 들여서 그것도 봐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가 일종의 가상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2월에 허가를 내 주는 관청으로서 2월에 과연 제대로 된 수신이 안 된다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방송을 제대로 원활하게 수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경험상 그것을 주장하고 싶은데 그것을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서 시험방송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화 기간, 또 시험방송기간 이런 것을 우리가 허가를 내면서 좌우기간 설정을 할 수 없지만 거기에 준하게끔 지금 기계도 잘 안 듣지요. 또 해

본 적이 없지요. 전 세계 최초로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상파 전 세계 최초, 또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장애도 많아서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방통위로서는 이것을 단계단계별로 제대로 점검을 해서 어디에서 장애가 생겼는지,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제조사와 방송사 간에 안에 내장 안테나를 다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입장에서 이것을 세세하게 다 정밀하게 수고가 많이 들겠지만 그렇게 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를 정 안 되면 마지막 우리 평창올림픽에 그때 가서 완벽하게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그렇게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걱정 겸 특별히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우리 사무처에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정부가 방송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허가조건이나 권고사항에 그런 부분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면 결국 UHD 방송은 직접수신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상파방송 직접수신을 향상을 위해서 공익광고 등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는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권고사항으로 보시면 수도권 지역에 SFN 방송망 구축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SFN 방송망이 조기에 구축되면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와 가전사 간의 합의해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은 지금 방통위와 미래부가 쟁점별로 나누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미래부와 계속 협력해 나가고 방금 이기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TF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해 주시면 저희가 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기주 위원님 말씀대로 TF팀을 시급히 구성을 해서 그런 단계단계별로 그렇게 계속 점검해 나가서, 하여튼 첩첩산중입니다. 저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우리 위원님들이 TF에 가서 한 방송사씩 담당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력도 없는데 우리가 가서...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일단 사무처에서 방송정책국의 지상파방송정책과 위주로 TF를 구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TF에 소속된 인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업무에는 가능한 한 신경 쓰지 말고 이 UHD 방송업무, 또 지금 김석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평창조직위와의

협의 이런 것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조정 같은 것은 저도 같이 논의를 해서 적절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김석진 위원님께서 “약속을 해 놓은 것이니까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썽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약속했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어떻게든지 허가를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한 결과, 이리이러한 조건 하에 허가를 할 경우에 충분히 정상적인 방송이 가능하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에 최초의 준비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그런 것을 충분히 극복하고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되어서 반드시 내년 적절한 시기에 완벽한 안정화가 다 이루어져서 평창 동계올림픽 훨씬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OBS라든지 IOC에게 저희의 방송 능력을 보여 주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상파 UHD를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부에서는 디지털 전환해서 화질이 HD급으로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UHD를 하는 것은 조금 이른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UHD가 HD보다 화질이 4배 좋은 것은 맞지만 그것이 서두르는 이유가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UHD 방송은 특히 저희가 표준으로 채택한 미국식인 ATSC 3.0의 경우에는 All-IP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화질이 4배 개선됐다는 것은 아주 부수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는 소위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서 다양한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는 그러한 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UHD 방송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UHD 방송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상파 방송사들이 내년 2월부터 바로 할 것은 아니지만 이 UHD를 활용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홈 포털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홈 포털 서비스를 하게 되면 유료방송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종전 유료방송에서 서비스를 받던 것과 유사한 그러한 다양한 채널 서비스와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가이드를 고도화해서 종전에는 프로그램 가이드를 통해서 과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만 확인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과거의 프로그램명을 확인해서 바로 클릭 한번으로 과거의 프로그램을 VOD 형식으로 이 UHD 표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앞으로의 프로그램을 한번 클릭을 해서 방송사가 제공해 놓은 소위 클립을 봐서 예고편을 미리 볼 수가 있는 그런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컨드 스크린 서비스(Second Screen Service)라든지 다이내믹 링크지 서비스(Dynamic Linkage Service)라든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 운동경기를 중계하다가 정규방송 시간이 되면 운동경기 결과는 ‘나중 뉴스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정규방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UHD 방송이 시작되면 그런 경우에는 임시로 하나의 채널을 더 생성을 해서 여전히 스포츠경기, 운동경기를 중계하면서 그다음에 정규방송을 시작할 수가 있고 시청자는 그것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것과 그다음에 UHD TV가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서 프로그램이 수시로 넘나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쇼핑을 비롯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야구경기를 보는데 야구경기에서 나는 투수 위주로 보고 싶다, 나는 타자 위주로 보고 싶다, 각각의 취향이 다를 것입니다. 지금은 방송사가 편집을 해서 보내주는

장면만 볼 수밖에 없는데 이 ALL-IP 기반의 ASTC 3.0 표준을 채택한 UHD TV를 볼 때에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선호하는 선수 위주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그런 획기적인 상황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었던 서비스들을 바로 이 UHD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상파 UHD를 허가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UHD TV로 판매되어 있는 것이 유럽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것이 약 80내지 100만대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정책당국이 표준을 처음부터 미국식으로 정했으면 이렇게 중간에 표준이 바뀌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런 오락가락한 정책 때문에 기존에 판매된 TV는 유럽식이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나오는 TV는 미국식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식 표준이 확정된 것은 올해 8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미국식 표준이 있었는데 저희가 선택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유럽식 표준이 최상위 것이었으니까 그것을 선택한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또 그것을 훨씬 더 뛰어 넘는 아까 말씀드린 ALL-IP 기반의 새로운 표준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새로운 표준을 채택한 것이지, 어떤 정책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지금 새로운 ASTC 3.0 표준을 채택한 TV를 제조하기까지는 아직까지 SFN 방송망도 표준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제조사들을 독려하고 있지만 아마 내년 2월경에나 그 TV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판매된 유럽식 방식을 채택한 UHD TV로 지금 저희가 허가한 지상파 UHD 방송을 볼 경우에는 그것을 해결해 줄 솔루션이 필요한데 그 솔루션 역시 내년 2월이 되어야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석진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처음에 UHD 방송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수상기 준비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TF팀과 그다음에 미래부와 서로 협력해서 제조사를 독려해서 가장 빠른 시기에 그 솔루션이 보급되고 TV판매는 저희가 독려할 수 없지만 솔루션 보급은 반드시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종전의 유럽식 TV를 사신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안테나 문제도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지상파 UHD 방송은 직접수신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들도 앞으로 미국식 UHD TV를 판매할 경우에는 번들로 직접수신 안테나를 같이 판매하려고 하고 있고, 이 UHD의 경우에는 지금 HD보다 수신환경이 엄청나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자그마한 안테나로도 충분히 방송을 수신할 수 있고 바로 그런 자그마한 안테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내장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필름형으로 부착해서 수신할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전력선에 안테나를 내장을 해서 수신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그것은 차차 개선되어 나갈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하여간 번들 형태로 외부의 자그마한 안테나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콘텐츠 투자계획이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으나 지금 저희가 허가조건에 담은 것처럼 최소한 허가신청서, 이 허가신청서는 나중에 보정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투자금액 이상을 반드시 집행하도록 했고, 그것에 대한 안전판이 저는 그 뒤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 프로그램의 제작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UHD 정책 방안에는 2019년까지는 5%를 이야기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와서 상황을 살펴보니깐 그것으로는 너무 콘텐츠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2017년 5%지만 '18년 10%, '19년 15%로 상향한 것입니다. 그것도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예상될 수 있는 것은 재방송의 경우에는 편성 가중치를 감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018년 이후에 콘텐츠가 다양하게 제작이 될 수 있어서 그에 따라서 투자금액 집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의미에서 우선 첫 해인 2017년에 콘텐츠 투자액을 봤을 때 콘텐츠 투자액은 지상파 UHD 정책방안에 원래 나와 있던 것을 훨씬 초과하는 오히려 그런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첫해에 이와 같이 원래 정책방안에 나온 것보다 더 많은 콘텐츠 투자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첫해부터 안정적인 콘텐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는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상파방송사들이 주위에서 내년 2월에 과연 지상파 UHD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상파 3사 모두 확고하게 내년 2월에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믿고 지금 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권고사항이 앞에 있는 허가조건하고 비슷한 것이 또 권고사항에 들어갔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권고사항에 있는 'UHD 정책방안에 기재된 금액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것은 콘텐츠 투자뿐만 아니고 시설투자도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한 모든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듯이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 모두, 이 지상파 UHD 방송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그것을 수상할 수 있는 수상기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결은 어찌 보면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이후에 TF를 구성해서 당연히 철저히 챙겨야 되겠는데 위원님들도 TF 구성원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

TF 구성원이 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모든 정책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내년 2월에 정상적인 지상파 UHD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의견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허가조건, 또 개별 허가조건 그다음에 공통 권고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있으신 것은 아니신가요?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추진경과에 의견청취한 것 추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시지만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을 안 하시면...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셔서 이미 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이야기해서는 잘 안 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명칭을 뭐라고 넣을까요? 심사위원회 운영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 간담회'를 그렇게 넣을까요, 아니면 '방송사 의견청취' 그렇게 넣을까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동그라미로 해서 '10월 29일 방통위, KBS·SBS·MBC에 대한 의견청취'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 정도 넣으면 되겠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위원장님 주관 하에 위원님들 다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의미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들이 전부 참석했다는 의미를...

○ 이기주 상임위원

- 토요일에 심야까지 했다, 이 소리는 꼭 안 들어가도 되는데 거기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왜 자꾸 그것을 그렇게 흐릿하게 이야기하는지...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제가 말씀드린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해서 참석자 명단을 쓰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참석자 명단까지 쓸 것은 없고….

○ 이기주 상임위원

- 자구는 위원장님과 김영관 국장이 상의해서….

○ 최성준 위원장

- 상임위원 전원이 참석했다는 그 표시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허가조건과 관련해서 저는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할 것, 편성할 것, 준수할 것, 이행할 것, 제출할 것 자구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가서 교부할 때 지상파 3사에게 괜히 과거의 허가조건 이행여부와 관련해서 이것이 이런 뜻이네, 저런 뜻이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허가서상에도 그렇게 말이 정리가 되어 있지만 사무처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저희 UHD 허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대국민에게 정보제공, 홍보하는 의미에서 지금도 UHD TV는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국민들이 오해하시기를 UHD 방송 허가가 됐으니까 지금 UHD TV 파는 것은 그것을 볼 수 있는 TV 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조사가 그런 것들을 고지하면서 TV를 판매한다고는 하지만 또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TV를 자꾸 더 팔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경우에 따라서는 미흡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 보호차원에서 미래부와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지켜지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희로서 따로 언론을 통하든지 또는 기구를 통하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해서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보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허가조건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2016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건 (2016-63-231)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2016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은 '2016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안동문화방송(주), (주)G1, (주)TBC, (주)KNN, (주)제주방송, (주)광주방송 등 총 6개사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방송국에 대해 허가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 <붙임 1>과 같이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를 의결한다'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6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안동문화방송(주) 등 6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의 독립성,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통위원회 상임위원과 심사분야별 전문가 총 9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2016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운영하였고, 10월 25일 재허가 심사 대상 6개사의 대표자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다음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평가점수는 안동문화방송(주) 등 6개 재허가 대상사업자 모두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허가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심사위원회 주요 평가의견입니다. 허가유효기간은 스마트미디어의 확산 및 모바일 방송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상파DMB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체 경쟁력 강화와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기간을 3년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허가 신청사업자에 대한 심사의견으로 먼저 공통사항은 첫째, 지역 지상파DMB는 지상파TV의 재전송 수단으로만 거의 활용되고 있어 매체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용 콘텐츠 편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둘째 지상파DMB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장기 수익 창출 및 전담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 실시간 이동방송이라는 지상파DMB의 매체적 특성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상파DMB의 서비스, 기술,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G1, 광주방송 2개 방송사에 대해서는 동일 방송권역 내의 다른 지상파DMB 방송사에 비해서 수신 커버리지가 현저히 낮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수신 커버리지 향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정책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지상파 UHD가 도입됨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UHD 이동수신이 가능해졌고, 데이터 압축 기술의 발전으로 HD DMB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지상파TV의 이동수신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DMB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 지상파DMB는 지상파TV 이동수신 매체로서의 비중이 매우 크고, 재허가 심사항목도 지상파TV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상파TV 재허가 심사에 지상파DMB를 포함하여 함께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부는 지상파DMB방송국 재허가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재허가를 하되, 허가증에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부관사항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기술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다음 사무처의 검토 의견입니다. 안동문화방송(주) 등 6개 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고, 미래부의 기술심사 결과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재허가를 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과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심사 결과 등을 반영해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허가유효기간을 3년이 적절하다고 하면서도 지상파DMB 재허가를 지상파TV 재허가 심사에 포함하도록 정책건의를 한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상파DMB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 지상파DMB 유효기간이 지상파TV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과 동시에 종료되도록 방통위가 단축할 때에는 방송사가 이를 수용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재허가 조건(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상파DMB 전용 콘텐츠의 개발과 편성을 통하여 지상파DMB의 매체적 역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그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두 번째 지상파DMB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증장기 수익 창출 방안과 지상파DMB 전담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세 번째 지상파DMB의 이동방송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기술, 콘텐츠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 네 번째 허가유효기간이 지상파TV 방송국 허가유효기간과 동시에 종료되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유효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이를 수용할 것, 다섯 번째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 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여섯 번째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일곱 번째,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G1, 광주방송에 대해서는 개별조건으로 동일 방송권역 내의 타 지상파DMB 방송사에 비하여 수신 커버리지가 현저히 낮은 지역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수신 커버리지 향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방송국 허가증을 교부하고 재허가 심사결과는 방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리하고 갈 것이 공통조건 네 번째에 있는 것 '지상파TV 방송국 허가유효조건과 동시에 종료되도록 맞추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설명에 있는 것처럼 일단 5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상파TV 방송국 허가유효기간과 동시에 종료되도록 단축할 수 있는 것을 수용하라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아마 이런 조건은 처음이고 이례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지상파DMB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상파가 올해 연말 또는 내년에 재허가 심사를 받게 되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그 허가심사에서 허가기간이 얼마가 될지를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DMB 허가기간을 정하지 못해서 이런 특이한 허가조건이 부과가 된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김석진 위원님께서 우선 지상파DMB,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잘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감사를 드리고, 심사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난달이지요. 6개 방송사 대표들로부터 의견진술도 듣고 의견청취를 들어서 심사를 했는데 650점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요건을 취득했다,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사무처 그동안 고생한 데 대해서 특별히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이런 표현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일종의 사양산업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UHD가 이동간의 수신이 가능한 기술적인 진보도 이루어져서 흥이 안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투자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닫을 수도 없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상파 메이저방송사 외에 개별 DMB사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UHD급으로 화질도 개선해서 상당히 이용자들이 그래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건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상파 UHD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병행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 정책을 검토해야 하고 연구반을 또 다시 가동을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소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정책국장께서 아주 소상하게 다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보탬 말은 없고 그렇게 해서 심사(안) 올린대로 심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상파DMB 정책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상파 UHD가 도입되면서 이동에 관한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과 같이 해서 반드시 지상파DMB 정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 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배중섭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유입니다.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 기준 및 절차,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별표 1]을 보완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선내용은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의 각 항목별 세부점수 기준을 마련하였는바, 먼저 기획·대본·연출 관련 항목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핵심이 되는 창의적 역량과 관련된 항목이므로 한국인이 참여한 분야수와 참여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연기자·출연자 및 제작기술 인력 관련 항목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공동제작·참여하는 경우, 항목별 만점 점수의 절반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및 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개정사유 부분입니다. 상위법령이 국내물의 ‘구별’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고시에서 방통위의 사전인정을 전제로 국내물의 ‘인정’기준 및 절차를 정한 것은 상위법 위임범위 일탈이라는 법제처 정비의견에 따라, 개정 내용입니다. 공동제작협정에 의하지 않은 국내제작물 인정의 경우 필요시 국내제작물임을 ‘확인받으려는 자’로 규정하고 이와 함께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물 인정은 사전승인과 사후승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인정기준상 ‘음향’은 ‘음악·음향’으로, ‘시나리오’는 ‘원작·대본’ 등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분야 전문PP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사유로는 외국문화를 주된 분야로 등록된 전문PP는 주된 분야 방송프로그램이 해외물인 경우가 많아 국내물 편성규제 준수를 위해 해외전문PP가 드라마 전문PP로 방송분야를 변경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정내용 맨 하단입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문화 전문PP에 대한 국내제작물 편성규제의 적용은 유지하되, 앞으로 2년간 국내제작물 의무 편성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의결을 마치면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회의는 11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 제6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00분 폐회 】